



2020 년 3 월 13 일

총회위원회(General Conference Committee) 여러분께,

우리의 주님, 구주이자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.

우리 총감독회 회장단은 6 주 후 개최 예정인 2020 년 총회를 코로나 19 의 세계적 대유행을 고려하여 연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.

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을 담아, 목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인 영적이면서도 현세적인 구체적 인도와 우리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임무를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.

새롭게 발표된 미국으로의 국제여행 제한으로 인해 해외지역총회 대의원들의 참여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국제 여행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커다란 위험과 대규모 집회장에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때 발생하는 잠재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. 우리는 대규모 감염으로 인한 격리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.

우리는 또한 공정한 대표성을 지니고 모이게 될 전 세계적 교단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지합니다.

만일 특정 지역의 많은 대의원이 비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할 불공정을 주목합니다. 만일 중대한 사항이 결정된다면 총회의 신뢰성에 흠집이 생길 것입니다. 우리는 정의 핵심 가치를 따르려 합니다.

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총회를 연기해 달라고 권고합니다. 우리는 총회위원회와 함께 이 중요한 사역 일정을 재조정할 것입니다.

그동안 우리는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.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취약하고, 고통받아 두려움에 사는 모든 사람을 돌보기 위해 최전선에 선 연합감리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.

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며...

총감독회장 케네스 카터 감독과 차기 회장 시씨아 하비 감독